

민간참여형 청년주택 지원사업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경상남도 청년주거 지원 조례 제6조(청년주거사업)
- 목 적 : 민간기업의 기부에 따른 청년주택을 공급하여 도내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비 부담 완화 도모
- 사업기간 : 2020년~2030년 ※ 2020년 최초 시행
- 위 치 : 도내 청년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 1개소(연간)
 - '20년 사업지 : 김해시 삼안로196번길 12-18(삼방동), 다가구 10호/중흥건설(광주)/'21.4.개소
 - '21년 사업지 : 창원시 성산구 비음로 44(사파동), 다가구 6호(공유1)/삼정기업(부산)/'22.6.개소
 - '22년 사업지 : 거제시 거제중앙로9길 28(고현동), 다가구 10호 내외/우미건설(서울)/설계용역 예정
- 사업량 : 다가구주택 1동(10호 내외) 리모델링 및 집기 구입
- '23 사업비 : 200백만원 ※ 도비 50, 시비 50, 민간기부 1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 재원별 | 계 | 22년까지 | 23년 | 24년 | 25년 | 26년 이후 |
|----------------------------------|-----|-------|-------|-----|-----|-----|--------|
| 민간참여형 청년주택 지원사업 (10호/년) | 계 | 2,200 | 600 | 200 | 200 | 200 | 1,000 |
| | 도비 | 550 | 150 | 50 | 50 | 50 | 250 |
| | 시군비 | 550 | 150 | 50 | 50 | 50 | 250 |
| | 기타 | 1,100 | 300 | 100 | 100 | 100 | 500 |

- 사업내용
 - 사업기간(6년) 동안 15년 이상 노후된 주택을 제공할 건축주를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리모델링 및 집기구입 등을 지원(200백만원)하고 입주를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인근 시세의 50%로 주택 공급
- 입주대상 : 도내 거주하는 청년(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
- 추진방법 : 업무협약(MOU) 체결
 - ※ (도)사업계획 수립 및 성과분석, (시군)대상건물 모집 공고 및 선정, (경남개발공사) 사업시행 및 입주자 모집, (민간기업)사업비 기부
- 기업참여 의의(인센티브) : 경남도·시군·경남개발공사·기업 등 업무협약 체결 및 언론홍보, 기업사회공헌 실천, 감사패 전달, 기부금 세액공제(검토중)

□ '23년 추진계획

- 참여민간기업 발굴 및 선정 : '22. 하반기
- 사업계획 수립(도) : '23. 2~3월
- MOU 체결 및 사업대상지 공고·선정(해당 시·군에서 모집) : '23. 4~5월
- 리모델링 설계용역·공사 및 입주자 모집(경남개발공사) : '23. 6.~'24. 4.
- 입주식 개최 및 입주 : '24. 5월~

□ 협조사항

- 청년주택 조성사업 참여 및 민간기업 적극 발굴(경남도와 공동 발굴)

참고1

2020~2022년 민간참여형 청년주택 사업 추진현황

| 구 분 | 추진 현황 | 관련 사진 |
|---|--|---|
| <p>김해 (’21.4.개소) *’20년 사업 (1호)</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삼안로196번길 12-18(삼방동) * ’95.5. 사용승인(민간소유) * 경남도·김해시·개발공사·(주)중흥건설(1억원 기부) 업무협약(’20.6.23.) ○ (사업기간) 2020. 6. ~ 2021. 3. ○ (규모) 2개층, 연면적 276㎡, 10호(1층 남5, 2층 여5) ○ (입주대상) 만19~39세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120%(3,174,176원) 이하 ○ (임대료) 보증금 100만원, 월임대료 5~20만원 ○ (사업시행/운영기관) 경남개발공사/김해시 |  |
| <p>창원 (’22.6.개소) *’21년 사업 (2호)</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성산구 사파동 29-5 * ’01.11. 사용승인(민간 소유) * 경남도·창원시·개발공사·삼정기업(주)(1억원 기부) 업무협약(’21.5.31.) ○ (사업기간) 2021. 5. ~ 2022. 5. ○ (규모) 2층, 연면적 296㎡, 주거(여 6호) 및 공유공간(1호) ○ (입주대상) 만19~39세 이하 여성,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3,212,113원) 이하 ○ (임대료) 보증금 100만원, 월임대료 9~18만원 ○ (사업시행/운영기관) 경남개발공사/창원시 |  |
| <p>거제 (’23.5.개소) *’22년 사업 (3호)</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고현동 464-5 * ’04. 6. 사용승인(민간 소유) * 도·거제시·개발공사·금파재단(1억원 기부, 우미건설 출연) 업무협약(’22.5.12.) ○ (사업기간) 2022. 5. ~ 2023. 5. ○ (규모) 3층, 연면적 390㎡, 주거(10호 내외) 및 공유공간 ○ (추진일정) 대상주택 선정(’22.7.19.), 설계용역 추진(’22.8.~) ○ (사업시행/운영기관) 경남개발공사/거제시 |  |

참고2

민간참여형 청년주택사업 언론보도자료

□ 민간참여형 청년주택 3호(거제시)



민간참여형 청년주택 '거북이집'...경남 거제에 세 번째 조성

2022-05-12 19:47 | 경남CBS 최효영 기자 |

핵심요약

일반 주택 새단장해 반값 임대



거북이집 업무협약.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의 민간참여형 청년주택인 '거북이집'이 김해와 창원에 이어 거제에도 조성된다.

도와 거제시, 우미건설이 출연한 공익재단인 금파재단, 경남개발공사는 12일 거북이집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거북이집은 민·관 협업을 기반으로 청년들이 저렴하고 쾌적한 주거 공간에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일반 주택을 새로 단장한 후 생활에 필요한 기본 집기를 설치해 주면, 집주인은 청년들에게 6년 동안 주변 시세의 반값 수준으로 임대한다.

도와 거제시는 각 5천만 원을 투입해 사업 계획 수립과 대상지 발굴 등을 추진한다. 금파재단은 도내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1억 원을 기부한다.

경남개발공사는 새 단장에 필요한 설계 용역과 공사 추진, 최초 입주자 모집 등 사업 시행을 담당한다.



청년주택 거북이집, 경남도청 제공

도는 반값 청년 임대주택을 확대해 청년이 떠나지 않고 살고 싶은 경남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경남도 하종목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도내 청년들을 위해 적극적인 사업 지원을 해준 우미건설과 금파재단에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지난해 4월 도내 첫 민간참여형 거북이집이 김해에 문을 열었다. 도내 두 번째 거북이집은 다음 달 창원에 문을 연다.

이 기사 주소: <https://www.nocutnews.co.kr/5755360>

청년 독립 요람 '거북이집' 거제에도 짓는다

도-시-금파재단-개발공사 협약
6년간 주변 시세 반값으로 임대

청년주택 '거북이집'이 거제에도 만
들어진다.

경남도·거제시·금파재단·경남개발
공사는 12일 오후 도청에서 2022년 민

간참여형 청년주택 '거북이집'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경남도·거제시는 '거제지역 거북이
집' 조성을 위해 각각 5000만 원을 투입
한다. 경남개발공사는 기존 주택 새 단
장과 입주자 모집을 담당한다. 금파재
단은 도내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1억
원을 기부한다.

금파재단은 '우미 린(Lym)' 아파트
로 잘 알려진 우미건설이 2006년 출연
해 설립한 공익법인이다. 건설산업재
해 피해 가정 아동·청소년 지원, 국가
유공자 가족 장학금 지원 등 다양한 사
회공헌을 하고 있다.

하종목 도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도내 청년들을

위해 사업 지원을 해준 우미건설과 금
파재단에 매우 감사하다"고 밝혔다.

'거북이집'은 청년들을 위한 주택 공
급 사업이다. 경남도 등은 일반주택을
새 단장하고 나서 생활에 필요한 기본
집기를 설치해 준다. 집주인은 청년들
에게 6년간 주변 시세 반값 수준으로
임대한다. 1~3호가 창원시·김해시·고
성군에서 운영되고 있다. 4~7호는 창
원시·사천시·거제시·진주시에 조성
될 예정이다. [남석형 기자 nam@idomin.com](mailto:nam@idomin.com)

민간참여형 청년주택 '거북이집' 거제 조성 김해·창원 이어 3번째



경남도는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한 민간참여형 청년주택 '거북이집'을 김해와 창원에 이어 거제에도 조성한다고 12일 밝혔다.

경남도는 이날 도청 소회의실에서 거제시, 재단법인 금과재단(우미건설출연 공익재단), 경남개발공사와 2022년 민간참여형 청년주택 '거북이집'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사진)했다.

민간참여형 거북이집은 민·관이 협업해 일반 주택을 리모델링해 생활에 필요한 기본 집기를 설치하고, 집주인은 청년들에게 주변 시세의 반값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이다.

이날 협약으로 경남도와 거제시는 거제지역 거북이집 조성을 위해 사업비 각 5000만 원을 투입하고, 사업계획 수립과 대상지 발굴 등을 담당한다.

금과재단은 도내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사업비 1억 원을 기부하고, 경남개발공사는 리모델링에 필요한 설계 용역과 공사 추진, 최초 입주자 모집 등을 맡는다.

하종목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청년주택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박재근 기자

5.8 X 22.8 cm

경남도, 민간참여형 청년주택 '거북이집' 거제에 조성한다

2022/05/12 17:05

김해와 창원 이어 3번째 집..."청년 주거 안정에 도움"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민간참여형 청년주택 '거북이 집'을 김해와 창원에 이어 거제에도 조성한다고 12일 밝혔다.

경남도는 이날 도청 소회의실에서 거제시, 재단법인 금파재단(우미건설 출연 공익재단), 경남개발공사와 2022년 민간참여형 청년주택 '거북이집'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민간참여형 거북이집은 민·관이 협업해 일반 주택을 리모델링해 생활에 필요한 기본 집기를 설치하고, 집주인은 청년들에게 주변 시세의 반값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이다.

이날 협약으로 경남도와 거제시는 거제지역 거북이집 조성을 위해 사업비 각 5천만원을 투입하고, 사업계획 수립과 대상지 발굴 등을 담당한다.

금파재단은 도내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사업비 1억원을 기부하고, 경남개발공사는 리모델링에 필요한 설계용역과 공사 추진, 최초 입주자 모집 등을 맡는다.

협약에 참여한 금파재단은 '우미 린(Lynn)' 아파트 브랜드로 알려진 우미건설이 2006년 출연해 설립한 공익법인이다.

청년 주거복지 증진, 지역사회 공헌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이번 거북이집 사업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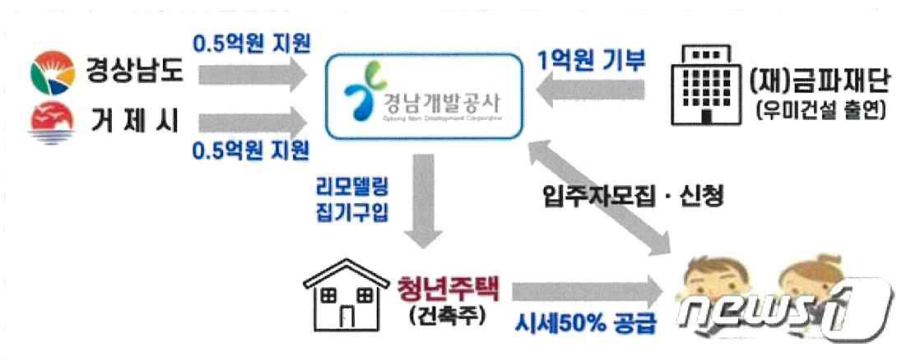
앞서 경남도는 지난해 4월 김해시 삼방동에 도내 첫 민간참여형 청년주택인 거북이집을 개소했고, 올해 6월에는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거북이집 개소를 앞두고 있다.'

bong@yna.co.kr
(끝)

민간참여형 청년주택 '거북이집' 거제에도 들어선다

경남도·거제시·금파재단·경남개발공사, 청년주택 공급에 공동 협력

(창원=뉴스1) 강대한 기자 | 2022-05-12 15:44 송고



경남도와 거제시·(재)금파재단·경남개발공사가 12일 오후 도청에서 2022년 '거북이집'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은 거북이집 사업추진 체계도.(경남도 제공)2022.5.12 © 뉴스1

경남도와 거제시·(재)금파재단·경남개발공사는 12일 오후 경남도청에서 2022년 민간참여형 청년주택 '거북이집'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거북이집'은 민·관 협업을 기반으로 청년들이 저렴하고 쾌적한 주거공간에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일반주택을 새단장(리모델링)한 후 생활에 필요한 기본집기를 설치해 주면, 집주인이 청년들에게 6년 동안 주변 시세의 반값 수준으로 세를 놓는다.

이번 협약으로 도와 거제시는 거제지역 '거북이집' 조성을 위해 사업비 각 5000 만원을 투입하고, 사업계획 수립과 대상지를 발굴한다.

금파재단은 도내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사업비 1억원을 기부하고, 경남개발공사는 리모델링에 필요한 설계용역 및 공사 추진, 최초 입주자 모집 등 사업 시행을 맡는다.

금파재단은 '우미 린(Lynn)' 이란 아파트 브랜드로 알려진 우미건설이 2006년 출연해 설립한 공익법인이다. 건설산업재해 피해가정 아동·청소년 지원, 국가유

공자 자손 장학금 지원 등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벌이고 있다.

금파재단은 청년 주거복지 증진, 지역사회 공헌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이번 '거북이집' 사업에도 동참한다.

도는 지난해 4월 김해시·중흥건설(주)·경남개발공사와 함께 김해시 삼방동에 도내 첫 '민간참여형 청년주택'인 거북이집을 개소했다. 6월에는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창원특례시·(주)삼정기업·경남개발공사와 협업해 추진 중인 거북이집이 문을 열 예정이다.

거북이집은 2020년부터 매년 1곳 씩 조성되고 있다. 거제시는 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 이달 중 모집 공고를 낼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남도민뉴스] 민간참여형 청년주택 '거북이집', 거제에도 조성한다!

경남도민뉴스 2022. 5. 12. 16:38

URL 복사

+이웃추가

- 12일, 2022년 민간참여형 청년주택 '거북이집' 조성사업 업무협약 체결
- 경상남도·거제시·(재)금파재단·경남개발공사, 청년주택 공급 위해 공동 협력
- 2020년부터 매년 1개소씩 올해 세 번째 조성, 경남 대표 청년정책 자리매김



[김부경 기자] 경상남도와 거제시, (재)금파재단(우미건설 출연 공익재단), 경남개발공사는 12일 오후 경남도청에서 2022년 민간참여형 청년주택 '거북이집'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내 청년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하종목 경남도 기획조정실장과 박환기 거제시장 권한대행, 김영길 우미건설 부사장, 김종섭 경남개발공사장 직무대행이 참석했다.

민간참여형 청년주택 '거북이집'은 민·관 협업을 기반으로 하여 청년들이 저렴하고 쾌적한 주거공간에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일반주택을 새단장(리모델링)한 후 생활에 필요한 기본집기를 설치해 주고, 집주인은 청년들에게 6년 동안 주변 시세의 반값 수준으로 임대하게 된다.

이번 협약으로 경남도와 거제시는 거제지역 '거북이집' 조성을 위해 사업비 각 5천만 원을 투입하고, 사업계획 수립과 대상지 발굴 등을 추진한다. (재)금파재단은 도내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사업비 1억 원을 기부하고, 경남개발공사는 새단장(리모델링)에 필요한 설계용역 및 공사 추진, 최초 입주자 모집 등 사업 시행을 담당한다.

경남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층에게 반값 청년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하여 청년인구 유출감소 대응에도 총력을 다해 청년이 떠나지 않고, 살고 싶은 경남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재)금파재단은 '우미 린(Lynn)' 아파트 브랜드로 유명한 우미건설이 2006년 출연해 설립한 공익법인으로 건설산업재해 피해가정 아동·청소년 지원, 국가유공자 자손 장학금 지원 등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청년 주거복지 증진, 지역사회 공헌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이번 '거북이집'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했다.

협약식에서 하종목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도내 청년들을 위해 적극적인 사업지원을 해준 우미건설과 금파재단에 더욱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지자체, 민간 등 기관 간 협업을 바탕으로 청년들의 주거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청년주택 사업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해 4월, 김해시·중흥건설(주)·경남개발공사와 함께 김해시 삼방동에 도내 첫 '민간참여형 청년주택'인 거북이집을 개소한 바 있으며, 올해 6월에는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창원특례시·(주)삼정기업·경남개발공사와 협업하여 추진 중인 거북이집 개소를 앞두고 있다. 2022년 민간참여형 청년주택으로 조성될 거북이집은 거제시 소재 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 5월 중에 모집 공고할 계획이다.

□ 민간참여형 청년주택 2호(창원시)

경남도민일보

2021년 06월 01일 (화)
05면 자치의정



경남도·창원시·삼정기업·경남개발공사가 31일 오후 도청에서 '2021년 민간참여형 청년주택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이날 협약식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남도

‘민간참여형 청년주택’ 창원에도 공급

도·시·삼정기업·도개발공사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김해 이어 도내 두 번째

‘민간참여형 청년주택’ 사업이 김해에 이어 창원에서도 진행된다.

경남도·창원시·삼정기업·경남개발공사는 31일 오후 도청에서 ‘2021년 민간참여형 청년주택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민간참여형 청년주택 지원사업’은 민관 협업으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저렴하고 쾌적한 집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우선 경남도·창원시는 사업비 각 5000만 원을 경남개발공사에 지원한다. 또한 삼정기업은 사업비 1억 원을 경남개발공사에 기부한다.

경남개발공사는 2억 원으로 민간주택에 새 단장 비용과 생활 집기 설치를 지원하고, 입주자 모집을 한다. 해당 집 주인은 청년들에게 6년 동안 주변 시세 반값 수준으로 임대한다.

도·창원시는 창원시 관내 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 오는 11일까지 참여 신청(문의 창원시 주택정책과 055-225-4214)을 받는다.

이번 사업에 참여한 삼정기업은 ‘삼정그린코아’로 유명한 부산 지역 대표 건설사 가운데 하나다. 지역 내 아파트

공급뿐 아니라 저소득 가정 주택 수리 등 사회공헌 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종원 경남도 경제부지사, 정혜란 창원시 제2부시장, 정병창 삼정기업 사장, 김중섭 경남개발공사 상임이사가 참석했다.

박 경제부지사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청년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준 삼정기업에 특히 감사하다”며 “청년 주거 부담이 실질적으로 완화될 수 있는 사업 모델인 만큼 이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 4월 김해시·중흥건설·경남개발공사와 함께 김해지역에 도내 첫 ‘민간참여형 청년주택’을 개소했다. 남석형 기자 nam@idomin.com

19.6 X 23.1 cm

“저렴하고 쾌적한 주거 제공” 민간참여 청년주택 지원 협약

경남도와 창원시, ㈜삼정기업, 경남개발공사는 31일 도청에서 ‘2021년 민간참여형 청년주택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민간참여형 청년주택 지원사업’은 민관 협업을 기반으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저렴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민간주택에 새단장(리모델링)과 생활에 필요한 기본집기 설치를 지원하고 지원받은 집주인은 청년들에게 6년 동안 주변 시세의 반값 수준으로 임대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종원 경제부지사와 정혜란 창원시 제2부시장, 정병창 삼정기업 사장, 김종섭 경남개발공사 상임이사가 참석했다.

정만석기자

7.2 X 10.7 cm

경남매일

2021년 06월 01일 (화)
01면 종합



31일 경남도와 창원시, 삼정기업, 경남개발공사 등이 청년주택 지원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 중이다.

반값 청년주택 공급 도, 창원시·삼정 협약 “주거 부담 실질 완화”

경남도는 31일 도청에서 창원시, 삼정기업, 경남개발공사와 ‘2021년 민간참여형 청년주택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했다.

이 사업은 민·관이 협업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저렴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한다.

민간주택을 새로 단장해 생활에 필요한 기본 집기를 지원하고, 이를 지원받은 집주인은 청년들에게 6년 동안 주변 시세의 반값 수준으로 임대한다. 이날 협약으로 경남도와 창원시는 창원지역 청년주택 조성을 위한 사업비 각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사업계획 수립과 대상지 발굴 등을 추진한다. 삼정기업은 사업비 1억 원을 기부하고, 경남개발공사는 새 단장 설계용역과 공사 등 사업 시행을 담당한다. 박종원 경남도 경제부지사는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사업모델인 만큼 기관 간 협업을 통해 계속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재근 기자
5.8 X 21.2 cm



임대인에게 주택 리모델링·집기 비용을 지원하고, 청년에게 6년간 반값 임대하는 ‘민간참여형 청년주택 지원사업’ 업무협약이 31일 체결됐다. 경남도 제공

경남·창원·삼정기업·GNDC 민간참여 청년주택 지원협약

경남도와 창원시, (주)삼정기업, 경남개발공사(GNDC)는 31일 도청에서 청년 주거 지원을 위해 ‘민간참여형 청년주택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민간참여형 청년주택 지원사업은 민·관 협업을 기반으로 청년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저렴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한다. 이들 공공기관은 민간주택 새단장(리모델링)과 생활에 필요한 기본집기 설치를 지원해 주고, 지원받은 집주인은 청년들에게 6년 동안 주변 시세 반값 수준으로 임대한다.

이번 협약으로 경남도와 창원시는 창원지역 청년주택 조성을 위한 사업비를 각각 5000만 원씩 지원하고, 사업계획 수립과 대상지 발굴 등을 추진한다.

(주)삼정기업은 도내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사업비 1억 원을 기부하고, 경남개발공사는 리모델링 설계용역 및 공사 추진, 최초 입주자 모집 등 사업 시행을 담당한다. 삼정기업은 ‘삼정그린코아’로 유명한 부산 지역 대표 건설사 중 하나로 지역 내 아파트 공급뿐 아니라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주택수리 등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경남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에게 반값 청년임대주택을 공급해 청년이 살고 싶은 경남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종원 경남도 경제부지사와 정혜란 창원시 제2부시장, 정병창 삼정기업 사장, 김종섭 경남개발공사 상임이사가 참석했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 4월 김해시, 중흥건설, 경남개발공사와 함께 김해지역에 도내 첫 ‘민간참여형 청년주택’인 거북이집 2호를 개소했다.

김길수 기자 kks66@

12.5 X 19.0 cm

□ 민간참여형 청년주택 1호(김해시)

청년 공유주택 김해에 선다...경남형 '거북이집 2호' 공급

2020/06/23 15:10



경남도, 민간참여형 청년주택 추진 업무협약
[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청년이 돌아오는 '청년특별도'를 올해 도정시책으로 추진하는 경남도가 경남형 청년 공유주택인 '거북이집 2호'를 김해에 공급한다.

경남도와 김해시, 증흥건설, 경남개발공사는 23일 도청 경제부지사실에서 거북이집 2호를 건립하는 민간참여형 청년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청년들의 주택 수요가 많은 김해에 주거비 부담이 적고 주거환경이 좋은 청년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다.

민간이 소유한 노후주택 리모델링을 지원하고 집주인은 6년간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의 청년에게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주택을 임대한다.

이를 위해 도와 김해시는 청년주택 사업비를 5천만원씩 지원하고, 사업계획 수립과 대상지 발굴 등을 담당한다.

증흥건설은 청년주택 사업비 1억원을 지원하고, 경남개발공사는 리모델링과 입주자 모집 등 사업을 시행한다.

박종원 경제부지사는 "이번 사업에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도 참여해 청년 주택 공급이 더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청년이 머물고, 돌아오고, 찾아오는 청년특별도를 위해 청년이 원하는 맞춤형 주거복지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ttps://www.premiumnews.co.kr/service/structure.do?method=structur...> 2020-06-24

청년 공유주택 김해에 선다...경남형 '거북이집 2호' 공급

경남도-김해시-중흥건설-경남개발공사 업무협약 체결

경남도가 김해시, 중흥건설(주), 경남개발공사와 협약을 맺고 청년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

박종원 경남도 경제부지사는 조현명 김해시 부시장을 비롯한 백승권 중흥건설(주) 대표이사, 이남두 경남개발공사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23일 경제부지사실에서 '민간참여형 청년주택 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협약을 체결했다.

'민간참여형 청년주택'인 거북이집 2호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청년수요가 많은 김해지역에 민간기업과 함께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민간 소유 노후주택에 대해 리모델링을 지원해 주고, 지원받은 집

주인은 6년간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의 청년에게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주택을 임대하게 된다.

이번 협약으로 경남도와 김해시는 청년주택 사업비 각 5천만 원을 지원하고, 사업계획 수립과 대상지 발굴 등을 추진하게 된다. 중흥건설(주)은 청년주택 사업비 1억 원을 지원하고, 경남개발공사는 리모델링, 입주자 모집 등 사업시행을 담당한다.

협약식에 참석한 박 경제부지사는 "이번 청년주택 사업에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도 참여해 청년주택 공급이 보다 원활히 진행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청년이 머물고 돌아오고, 찾아오는 청년특별

도'를 위해 우리도는 향후에도 청년이 원하는 맞춤형 주거복지를 확대하고 또 희망을 주는 일자리를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청년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상반기, 경남개발공사 핸드볼선수단 기존숙소를 리모델링해 '거북이집 1호'를 오픈한 바 있으며, 현재 7명의 청년이 주변 시세의 반값 이하인 보증금 100만 원에 월임대료 5~13만 원으로 거주하고 있다.

또한 진주 정촌 국민임대아파트에 '청년 특별공급 30호'를 공급했으며, 하반기에는 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청년이 만드는 반값 임대주택 공모사업' 진행할 계획이다. 이봉우기자

김해도 청년공유주택 공급한다 도, 김해시·중흥건설 등과 업무협약

경남지역 청년들의 비용 부담 없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청년주택 공급에 민·관이 손을 잡았다.

경남도는 23일 청년 주거복지 수요가 높은 김해에 민간참여형 청년주택사업인 '거북이집 2호'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김해시, 중흥건설(주), 경남개발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거북이집은 경남도의 청년 주거복지사업 중 하나로 주거환경 개선,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역 대학생,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 등에 시세의 반값에 임대하는 공유주택이다. 도는 민간 소유 노후주택을 리모델링하도록 지원하고, 집주인은 주택을 임대한다.

이번 협약으로 경남도와 김해시는 청년주택 사업비를 각 5000만원 지원하고 사업계획 수립과 대상지 발굴을 담당한다.

중흥건설(주)은 청년주택 사업비 1억원을 지원하고, 경남개발공사는 리모델링, 입주자 모집 등을 맡는다.

김희진 기자 likesky7@knnews.co.kr

7.5 X 14.0 cm

'경남형 청년 공유주택 2호' 추진

경남도가 김해시, 중흥건설(주), 경남개발공사와 함께 청년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

도는 23일 경제부시사실에서 박종원 경제부지사는 조현명 김해시 부시장, 백승권 중흥건설(주) 대표이사, 이남두 경남개발공사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민간참여형 청년주택 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으로 도와 김해시는 청년주택 사업비 각 5000만원을 지원하고 사업계획 수립과 대상지 발굴 등을 추진하게 된다.

중흥건설(주)은 청년주택 사업비 1억원을 지원하고 경남개발공사는 리모델링, 입주자 모집 등 사업시행을 담당한다.

'민간참여형 청년주택'인 거북이집 2호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청년수요가 많은 김해지역에 민간기업과 함께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정만석기자

8.1 X 10.4 cm

경남도, 민간참여형 청년주택 공급

경남도가 23일 김해시, 중흥건설, 경남개발공사와 청년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민간참여형 청년주택 사업' 협약을 맺었다. 민간참여형 청년주택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청년수요가 많은 김해지역에 민간기업과 함께 벌이는 사업이다. 협약에 따라 민간소유 노후주택에 대해 리모델링을 지원해 주고, 집주인은 6년간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의 청년에게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임대하게 된다. 사업비는 경남도와 김해시가 각 5,000만원을 지원하고 중흥건설이 1억 원을 부담한다. 사업계획 수립과 사업 대상지 발굴 후에는 경남개발공사가 리모델링 공사와 입주자 모집 등 사업시행을 담당한다. /창원=황상욱기자

7.5 X 8.9 cm

청년공유주택 ‘거북이집’ 2호 김해에

도·시·경남개발공사 등 협약
주변 시세 반값 최장 6년 임대

김해지역에 민간참여형으로 확대한 청년공유주택 ‘거북이집 2호’가 공급된다.

▶ 4월 29일 자 1면 보도

거북이집은 집을 등에 지고 다니는 거북이의 모습에 착안해 큰 집은 아니지만 청년들이 주거비 걱정 없이 살며 토끼를 넘어설 거라는 희망을 주고자 경남도가 지난해부터 추진한 사업이다.

청년 수요가 많은 김해지역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될 민간참여형 거북이집 사업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고 주거환경 개선도 하는 방향이다. 민간 소유 노후 주택을 리모델링하고,

집주인은 6년간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에게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임대한다.

경남도는 23일 도청에서 민간참여형 청년주택 공급을 위해 김해시, 중흥건설, 경남개발공사와 협약을 했다. 이날 협약식에 박종원 경제부지사, 조현명 김해부시장, 백승권 중흥건설 대표이사, 이남두 경남개발공사장이 참석했다.

협약으로 경남도와 김해시는 청년주택 사업비로 5000만 원씩 지원하고, 사업계획 수립과 대상지를 발굴한다. 중흥건설은 청년주택 사업비 1억 원을 지원하며, 경남개발공사는 리모델링과 입주자 모집 등 사업시행을 맡는다. 박 부지사는 “이번 청년주택 사업에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도

참여해 청년주택 공급이 더 원활히 진행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청년이 머물고, 돌아오고, 찾아오는 청년특별도를 위해 청년이 원하는 맞춤형 주거복지를 확대하고, 희망을 주는 일자리를 창출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올 4월 창원시 성산구 반지동 경남개발공사 핸드볼선수단 숙소를 리모델링해 거북이집 1호를 열었다. 이곳에 청년 7명이 보증금 100만 원에 월임대료 5만~13만 원 조건으로 살고 있다.

앞서 진주 정촌 국민임대아파트 30가구를 청년들에게 특별공급했다. 도는 청년공유주택 확산을 위해 하반기에 20억 원 규모 ‘청년이 만드는 반값 임대주택’ 18개 시군 공모사업도 진행한다. /표세호 기자 po32dong@idomin.com

19.6 X 12.6 cm



《 '21.4.12. 김해 청년주택 개소식 감사패 전달(중흥건설) 》